



Tongil Group Newsletter

Tongil Group <http://www.tongilgroup.org> Contact: info@tongilgroup.com Copyright© Tongil Group All Rights Reserved

True Parents' Activities

✧ "Registration in God's Kingdom and the Fatherland" held on 8.19, by the Heavenly Calendar (September 16, 2011)

The "Registration in God's Kingdom and the Fatherland", held for the purpose of registering in Korea, God's fatherland, was held on 8.19 by the heavenly calendar (September 16) at the Cheongpyeong Youth Center. From the United States 172 America Clergy Leadership Conference (ACLC) members took part in the registration and established ties with 172 Korean clans by receiving Korean surnames.





✧ Meeting held at Blue Sea Garden, on 8.23 by the Heavenly Calendar (September 20)

True Father, who had set out for Geomundo from Cheongpyeong, suddenly decided to stop at Blue Sea Garden in Yeosu while flying over Sooncheon. He arrived at around 4 PM and went out to the sea as a condition for the ocean providence. In the evening, he held a meeting.



✧ True Parents set conditions onboard a boat in Geomundo, on 8.24 by the Heavenly Calendar
(September 21)



On 8.24 by the heavenly calendar (September 21), True Father presided over a hoondokhwe session that lasted for more than twenty-three hours, and without resting even for an hour or two even though he was fatigued, left for Geomundo after watching the sunrise at 6:30 AM. He arrived at Geomundo at 6:50 AM by helicopter and immediately boarded a Spanish mackerel boat to set conditions through fishing.

A Spanish mackerel boat had been prepared for him, but it was rather narrow and swayed at every wave that came its way. He set conditions onboard that boat in the morning, and from around lunchtime he moved to the New Hope II, from which he continued setting conditions.

That day, True Father caught thirty-one fish—five king fish and twenty-six red sea breams. In the late afternoon, he at lunch, during which he received reports about the activities of ACLC members from Rev. Hyung Jin Moon, Rev. Sun Jo Hwang, Director Man Woong Cho, and Rev. Yang Heo.



A workshop for retired church leaders

On 8.22 by the heavenly calendar (September 19), a workshop for retired church leaders was held from 10 AM to 6:30 PM in the lecture hall on the thirteenth floor of the Dowon Building, situated in Dohwa-dong, Mapo-gu. Ten former church leaders attended, including Rev. Joon Soo Yang.

The workshop included reports on: 1)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Tongil, 2)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Association, 3) The current situation of Cheon Bok Gung, 4)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World Mission Headquarters and Japan, and 5) The current situation of media coverage. In between these sessions, the participants asked various questions and held discussions about proper church growth and utilizing a more developed church system. The workshop provided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the participants to ponder future developments.



Major news from the church regions

1. The Unification Church of Taiwan, which had been misunderstood and largely isolated from society for sixteen years, was officially recognized as a religious organization by the Taiwanese government in 1990. For the past ten years, it has received Excellence Awards every year. Furthermore, on September 5, the Unification Church of Taiwan was chosen from amongst 15,000 religious organizations to receive the Exemplary Excellence Award from the prime minister on behalf of the president in commemo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aiwan.



2. The Unification Church of Thailand was finally given the freedom to continue carrying out its mission work from the Thai government after twenty-one years of legal struggles.

On September 1, the Thai Supreme Court upheld two lower court acquittals in favor of the Unification Church. Moreover, as of June 26, the prosecution's charges against others including True Parents lapsed after twenty years and True Parents are now free to enter Thailand. Ever since visiting Thailand during their 1965 world tour to select holy grounds, the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have not entered Thailand for forty-six years, almost half a century. The Thai members are shedding tears of joy and gratitude as well as regret over all the years that they were unable to serve True Parents in their own country. They are eagerly waiting for True Parents to come to visit them. More than anything else, we applaud the eight leaders who had absolute faith in True Parents even during their imprisonment.

Major Media Coverage

※ Coverage of the One Korea Cup



[Issue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One Korea soccer tournament

공유하기   

다시보기
공지&게시판

[이슈&한반도] '원 코리아' 축구대회

고화질 보기 ▶

- 뉴스광장
- 아침뉴스타임
- 930뉴스
- 지구촌뉴스
- 뉴스12
- 뉴스타임
- News Today
- 오늘의 경제
- 뉴스5
- 뉴스7
- 뉴스9
- 뉴스라인
- 마감뉴스
- 일요뉴스타임
- 시사기획 KDS10
- 미디어비평
- 남북의 창
- 특파원 현장보고
- 1R 뉴스초점
- 알요진단
- 취재파일4321

- 스포스타임
- 스포츠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토요일, 남북의 창 이현준입니다.

먼저 남북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보는 <이슈 앤 한반도>입니다.

하나 된 한국, 원 코리아는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원이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분단 60년이 넘도록 통일은 다가오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하나 된 한국, 하나 된 민족을 기원하는 뜻깊은 축구경기가 열렸습니다.

※ Coverage of the Little Angels' Performance

KBS NEWS
KBS 스마트폰 재난 문자 알림서비스 개시
검색

방송다시보기 | **뉴스** | 스포츠 | 24시간 뉴스 | VOD스페셜 | 재테크 | 건강·생활 | 연예·문화 | **기상·재해**

전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정보·과학 | 포도 | 기자칼럼 | 앵커룸 | **HOT 이슈**

국제

뉴스 제보 >

뉴스 레터 >

지구촌 뉴스

시사기획 KBS 10

미디어 비평

남북의 창

특파원 현장보고

일요진단

취재파일 4321

시청자 여러분의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KBS HOME > 뉴스 > 국제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스크랩](#) [기사 보내기](#)

‘9·11 10주년’ 테러 공포 속 추모 물결

Millions remember the tenth anniversary of 9.11 despite terrorism fears



<앵커 멘트>

9·11 테러가 일어났지 오늘로 꼭 10년이 됩니다.

테러 공포는 아직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 날을 잊지 않겠다는 추모 열기에 절로 숙연해집니다.

임창원 특파원이 전합니다.

※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문' 발표 관련 뉴스

세계일보 2011.09.23

“남북한은 한가족... 통일 속히 이뤄지길”

Segye Time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one family.... We hope they quickly

미국종교지도자(美·천주평화연합 파주 임진각서 평화 기원 행사

남북한이 대치하는 최전선이자 분단의 상징인 경기 파주 임진각에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종교지도자협의회(ACLCO) 회원들은 22일 임진각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 통일을 향한 행진’ 행사를 열어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다.

천주평화연합(UJPP)과 ACLC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ACLC 회원 172명을 비롯해 황선조 UJPF 한국회장, 김민하 평화대

사 장경희원, 한라대학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마이클 샌킨스 ACLC 회장의 개최 선언에 이어 미국 종교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며 ‘에메이징 그레이스’를 합창한 뒤 한반도 통일기원문을 발표했다.

ACLCO 회원들을 대표해 기원문을 낭독한 티나 섉슨 목사(미국 보스턴 침례교회)는 “남북한은 ‘하나님 아래 한가족’이라며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질 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 들은 또 “평화의 종”을 타종하고 “평화 비둘기”를 하늘로 날리보내며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다. ACLCO 회원들은 이어 공산 모퉁이였던 국군과 유엔군 장병 1만여 명이 건너온 역사를 간직한 ‘자유의 다리’까지 도보로 행진하며 남북한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다.

ACLCO는 2000년 5월 미국 성직자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 연합운동과 결혼의 신성함과 사랑으로 봉진 가정의 신성함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초청으로 평안한 여름은 지난 16-19일 한국의 주요 도시를 찾아 평화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22일 경기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행진’ 행사에서 미국종교지도자협의회(ACLCO) 회원 등 참석자들이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평화 비둘기’를 하늘로 날리보내고 있다. 신동주(파주)·이현호 기자

연합뉴스 2011.09.22

▲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창설한 천주평화연합과 미국종교지도자협의회(ACLCO)는 22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 통일을 향한 행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문 총재의 초청으로 방한한 ACLCO의 미국 성직자 172명이 참석해 한반도 통일기원문을 발표하고 평화의 종 타종, 비둘기 날리기 행사를 진행한다.

BreakNews 2011.09.22

임진각 “평화를 위한 기도와 통일 대행진”

미국성직자 172명 부대의 허락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원문 발표

Break News: A Prayer for Peace and March for Unification Held at Imjingak

(ACLCO 대표 소치여거스트는 스칼라스 주교, 마이클 샌킨스 목사) 172명은 2011년 9월 22일 오후 1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 통일을 향한 행진’을 개최한다.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국성직자 172명은 지난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 연수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 기간 중에 172개 한국의 성씨를 부여받고 차에 걸면 하여 한국을 제 2의 조국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특히 9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16개 광역 시도를 찾아 평화강연, 지역행사 참석 등 한미 친선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날 임진각 행사에서는 미국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며 에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합창하고 한반도의 통일기원문을 발표하게 된다. 평화의 종 타종과 평화의 비둘기 날리기의 퍼포먼스도 펼칠 예정이다.

티나 섉슨 목사(미국 보스턴 침례교회)가 대표로 발표하게 되는 통일기원은 한국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세미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한국은 성씨를 중시한 공동체의 전통을 지닌 나라인 만큼 남북한도 ‘하나님 아래 한 가족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를 기원하게 된다.

미국 성직자 연합(ACLCO)란? The American Clergy Leadership Conference)

ACLCO(미국성직자 연합)은 기독교를 연합하고 결혼의 신성함과 부부간의 순결의 가치를 고양하고자 하나님이 문선명 목사에게 주신 비전에 뜻을 함께 하여 2000년 5월, 120명의 미국의 성직자들이 한국에 모여 태동하게 되었다. 그 이후, 미국 50개주 전역에 모든 종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친교를 나누는 20,000명의 성직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운동으로 성장했다. ACLC의 표어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지역사회를 재건하며, 나라와 세계를 새롭게 하자!” 이다.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기원문' 발표

천주평화연합+미국 성직자들로 구성된 미국종교지도자협의회

Break News: Prayer for Peace and March for Unification Declared At Imjingak

지도자 협의

회(ACLC) 대표 목사인 크리스토퍼 스콜랜드 주교, 마이클 켄킨스 목사가 172명은 2011년 9월 22일 오후 3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 통일을 향한 행진'을 개최했다.



▲ 임진각에서 가진 '평화를 위한 기도, 통일을 향한 행진' ©브레이크뉴스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국성직자 172명은 지난 9월 10일부터 24일 까지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연수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 기간 중에 172개 한국의 성씨를 부여받고 자매결연 하여 한국을 제 2의 조국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특히 9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16개 광역 시도를 찾아 평화강연, 지역행사 참석 등 한미 친선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날 임진각 행사에서는 마이클 켄킨스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며 어메이징 그레인스(Amazing grace)를 합창하고 한반도의 통일기원문을 발표하였다. 평화의 종 타종과 평화의 비둘기 날리기의 퍼포먼스도 펼쳐 남북의 분단의 상징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다짐하였다.

티나 쉐슨 목사(미국 보스턴 침례교회)가 대표로 낭독한 통일기원문은 "한국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세미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한국은 성씨를 중시한 공동체의 전통을 지닌 나라인 만큼 남북한도 '하나님 아래 한 가족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미국성직자 172명,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문' 발표 공개하기

2011년 09월 23일 (금) 11:08:47 이길상 기자 bohwa@newscj.com

Cheonji Times: 172 American Clergymen Declare a Prayer for Peace and March for Unification at Imjingak



▲ '평화를 위한 기도, 통일을 향한 행진'에 참여한 미국종교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있다. (사진제공:통일교)

임진각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 통일 대행진' 개최

[천지일보=이길상 기자] 천주평화연합(UPF 세계외장 문형진)과 미국 성직자들로 구성된 미국종교지도자협의회(ACLC 대표 조지어거스트 스타링스 주교, 마이클 켄킨스 목사) 172명은 22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 통일을 향한 행진'을 개최했다.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국성직자 172명은 지난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가 평의 청심국제연수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 기간 중에 172개 한국의 성씨를 부여받고 재매결연해 한국을 제 2의 조국으로 인연을 맺게 됐다. 특히 9월 16~19일까지는 16개 광역시·도를 찾아 평화강연, 지역행사 참석 등 한미 친선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임진각 행사에서 미국 성직자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합창하고 한반도의 통일기원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평화의 종 타종'과 '평화의 비둘기 날리기'의 퍼포먼스도 펼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다짐했다.

티나 썩슨 목사(미국 보스턴 침례교회)가 대표로 낭독한 통일기원문에서 이들은 "한국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세미나가 됐다"며 "한국은 성씨를 중심한 공동체의 전통을 지닌 나라인 만큼 남북한도 '하나님 아래 한 가족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원했다.

※ Please visit the Tongil Group homepage at www.tongilgroup.org/eng. Thank you.

